현불뉴스

불교관계법 차기국회로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가 의원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18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회됨에 따라 차기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지난 11일 정각회원 57명이 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등 3개법안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있다.

관람료사찰 2곳 지정

문화재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는 17일 임시회의를 갖고 화순 운주사와 담양 용흥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한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면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송광사주지 현고스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광주 자비의전화 개설

광주 자비의전화가 오는 27일부터 개설돼 청소년을 위한 무료전화상담을 실시한다.

광주 자비의전화는 청소년들의 고뇌 갈등 방황 소외 등을 상담한다.

(062)234-3330

낙동강 대청결운동

참여자치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정각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상임부회장 월강스님)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불자들이 지난 15일 낙동강 살리기 운동 및 대청결운동을 벌였다.

이날 불자들은 인간띠잇기에 이어 낙동강 대청결운동을 벌여 낙동강 일대 쓰레기를 수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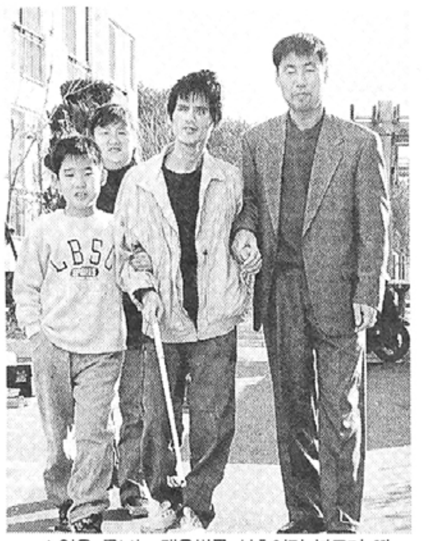
승가회 안기부법 반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정부와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려는 개악움직임은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부산 몰운복지관 개관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정관)에서 위탁운영하게 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년)이 20일 개관식을 가졌다.

몰운복지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가정, 노인, 재가복지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앞을 못보는 대운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도헌이가 지난 추석에는 용돈을 모아 시각장애용 지팡이를 선물했다.

"목욕시키며 '한몸' 느껴요"

도헌이네 보살행 '세밑 훈훈'

온가족 장애인돕기 매달 복지관 방문

윤경옥(단이슬어린이집 원장·41)보살은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어린이집 차량을 가지고 두송사회복지관으로 향한다. 두송복지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목욕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윤경옥씨는 올 2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 김종진(경찰공무원·42)씨와 아들 도헌(낙동초등학교 4년)이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남편은 윤보살이 차량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대운(시각장애인·25)씨를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데리고 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김대운씨는 부모없이 어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여동생도 정신지체아여서 바깥 활동이 거의 없이 살고있다.

김종진씨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대운씨를 목욕탕과 이발소에 데려가고 드라이브도 시켜주는 등 여지껏 해보지 못했던 사회경험들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을 둔 때문인지 도헌이의 마음 씀씀이도 예사롭지 않다.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대운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곤 하던 도헌이가 이번 추석에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대운씨의 시각장애용 지팡이를 선물했다. 도헌이는 "삼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과 함께 잘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스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윤보살은 자신이 거지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곤 하던 친정아버지의 자비행을 보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배웠듯이 도헌이에게 자신도 행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단다.

윤보살과 도헌이는 이번에 관음사에서 실시한 4박5일 동안의 대만 불교재단 자재병원의 자원봉사활동 견학과 호스피스교육에도 참여했다. 윤보살은 "대만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불교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족과 참여자의 수적인 부족을 절감했다"며 사람들의 참여부족을 안타까워했다.

김종진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못하는 것 같다"며 "처음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간날 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보람이나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김씨부부와 아픈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아들 도헌이의 환한 웃음이 불국토를 앞당기고 있음에 분명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여학생 포교대책 '발등의 불'

김형중법사 中3 755명 조사 男 21.5% 女12.7%만 '불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3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불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형중교법사(명성여고)는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소재 14개 중학교 7백55명의 고입선발고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분포조사한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불자는 21.5%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불자는 12.7%로 남여의 편차가 지난해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개신교(40%)와 천주교(14.7%)가 전체학생수의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형중법사는 "교회나 성당은 여학생을 위한 선교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는 반면 불교는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녀 전체비율에 있어서도 불교 18%, 개신교 35%, 천주교 11.6%, 기타 및 무교 35.2%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0%였던 기타 및 무교가 35.2%로 감소돼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결의문 채택

13일 불교지도자 워크숍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보경당에서 개최된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샵에서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환경관련 불교지도자 80여명은 이날 △탐욕에서 비롯된 환경파괴적 삶에 대한 참회 △범종단차원의 전문인력 조직 △지속적인 교육과 대안마련을 위한 연대강화 △국립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대정부건의 등 4개항을 결의한 뒤 실천과제로서 △사찰환경실태 및 보존지침서 제작 △도서, 컴퓨터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교환경교육의 실시 △(가칭)불교환경교서 발표 등을 제시했다.

'108인 이사제' 검토 중앙신도회 추진단

월주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각급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단장 혜창 총무부장)으로부터 신도회 구성현황과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

추진실무단은 재정부분에 대해서 "1인 중심의 재정출연은 운영상 전횡을 낳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1년간 일정액을 분담하는 '108인 재정이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초파일 전까지 창립할 계획이며 말사신도회는 현재 433개 사찰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포교사제 지지" 78%

조계종, 포교사 603명 설문

"지위·역할만족" 26.5%

종단 행·재정지원 필요

포교사들은 교구본사 또는 재적사찰의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포교활동시 사찰과의 협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이 지난 10월 하반기 포교사연수 기간중 포교사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포교사들은 교구본사 또는 재적사찰을 정해 활동하는 신도지도자로 정의하는 것에 77.7%(매우 동의 23.1%, 대체로 동의 54.6%)가 동의해 상임포교사제도의 정착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포교활동시 교구본사 또는 사찰과의 협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45.3%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주 협의한다는 15.6%에 그쳤다. 이에따라 상임포교사제도 실시를 위한 종단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들의 지위와 역할 만족도는 26.5%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계종도로서의 소속감도 '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종단에서 포교사를 방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포교사의 직업분포는 자영업(26.7%)이 가장 높으며, 가정주부(25.0%) 일반사무직(10.5%) 공무원(10.0%) 판매·서비스직(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1.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이 인근 건물공사로 인해 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한암스님 추모비 내년 5월 건립

월정문도회 탄허문집 발간… 위원장 혜거스님

조계종 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16일 제9차 한암문도회(대표 인허)를 열고 한암스님추모비를 건립키로 결의했다. 상원사 부도전에 건립되는 추모비는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문도회는 탄허스님 탑비와 경월스님 부도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문도회는 탄허스님문집 발간위원회(위원장 혜거)를 구성하고 제1차 탄허스님 문집발간에 들어갔다.

한편 월정사는 이날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97년 예산승인, 동해 삼화사 법당붕괴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쌍용양회의 석회석채취로 삼화사 법당이 붕괴되고있다"며 "석회석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삼화사를 복원하라"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등국제불교회관 '붕괴위기'

선재미술관 공사로 균열·누수등 지반침하

서울 종로구 연등국제불교회관(관장 원명)이 인근에 건설중인 선재미술관공사로 인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최근 선재미술관의 지하굴착공사로 기둥과 벽, 지붕, 문틀 등에 1~3㎝가량의 균열과 지하보일러실에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사중인 선재미술관은 연등국제불교회관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하굴착공사가 계속될 경우 붕괴의 조짐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우건설측이 최근 연등국제불교회관 건물 지하 15m에 2.5m 간격으로 철근을 넣어 큰크리트로 양생시키는 어스앵커(Earth anchor)라는 공법의 지반침하방지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 대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선재미술관은 건축면적 7백60여평에 지하 지상 각 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지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안전진단을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학교 종교교육 부당"

교육정책불교대책위

정부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국·공립학교 종교교육금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대책위는 일부 기독교계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학교 종교교육금지' 조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국·공립학교 종교교육실시는 부당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흥원 새해예산 56억여원

새 이사에 송석구총장…배명인씨 佛放이사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56억 4천여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진흥원은 교육연수 및 학술진흥 포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정운동도 내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계속 전개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이기영박사의 유고에 따라 후임이사에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을 선임했으며, 불교방송 이사에 배명인 이사를 추천키로 했다.

마음 'ㄴㅏ' 하나 죽는다면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붙을자리가 없어 욕심을 낼것도 착을 둘것도,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할것도 없다. '나'를 불바퀴에 그대로 내동댕이 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든지 내가 뭉개지든지 상관않고 무조건 내맡겨야만 업식을 항복받을 수 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정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93.2.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선 힘,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108염주(小) ₩320,000 목걸이₩150,000

단주(大27알) ₩250,000 단주(고무줄)₩70,000

명상용氣(기) 방석₩120,000 반지 ₩45,000

▣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옥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무진장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불교 교리 대강좌

■ 법사 : 무진장스님

■ 대상 : 청·장년 및 일반신도

■ 일시 : 97년 1월10일 ~3월 28일(3개월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조계사 內)

금강경 대강좌

■ 법사 : 무진장스님

■ 대상 : 청·장년 및 일반신도(교재제공)

■ 일시 : 현재강의중

■ 장소 :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조계사 內)

▣ 문의전화 :(02)730-1250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국청회